

조계종 두 신도회 '통합 가능성'

양측 지도부 '이미 교감' 방법 놓고 고민 고산스님 권유...8월 이후 가시화 될듯

4월24일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에 선진규 법사가 새로 취임함에 따라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통합 가능성에 그 어느 때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월24일 취임한 선진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4월26일 한 음식집에서 "신도회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될 경우 중앙신도회와의 통합은 당연한 것"이라며 통합의 대안을 처음으로 밝혔다. 선 회장은 회장 선출직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고산스님도 "나는 통합의 명수다. 당장 통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 회장은 "5년만에 전신회가 본 궤도

에 오른 만큼 (중신회와)경쟁을 붙이지 말고 대중불교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만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불청회장 당시 16개지부를 15개 지부로 조직을 확장시킨 경험이 있다는 선 회장은 50%정도 와해상태에 있는 전신회 조직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1차 10만 명불결사를 임기 안에 3차례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역시 통합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인창 교무부장은 "전신회와의 통합은 양측 지도부와 이미 교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는 8월20일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공동

회장 체제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통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신도회는 4월28일 종단합 회의실에서 총무원 총무원장 원택스님과 21명의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오는 8월20일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신회와 총무원이 협의해 9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5월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절차를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5년의 전통을 이어 온 전국신도회와 전국 본·말사 신도회를 주축으로 조직을 구성해 온 중앙신도회는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통합할 경우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통성과 조직력을 갖춘 단일한 거대 신도단

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조계종 종법상의 신도회 관리규정과 총무원의 자율성 보장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겨놓고 있어 양측 신도회와 총무원의 지혜로운 대화와 양보가 절실하다.

지난 94년 개혁종단 출범이후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지지했던 전국신도회는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다. 총무원 주도로 건설된 중앙신도회는 새로운 신도단체로 발돋움하려 했으나 총무원과의 마찰과 내부 갈등으로 표류해 왔다. 그동안 반쪽 신도회가 지나는 한계를 두 신도회가 빠져서 체합한 만큼 이제는 대승적인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거사운동을 펼칠 시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주식매수·자금출처 '핫이슈'

허문도 사장 선임이후 불교TV

"혹시 정치적 의도 없나" 정계식씨 사업체 부도

4월22일 불교TV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허문도씨는 23일부터 업무과외에 들어갔으며 28일에는 고산 조계종총무원장을 방문하는 등 고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5월10일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주식 매입 문제와 고계 안팎에서의 허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정계식씨의 자금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 위원장 정유스님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는 반드시 주식 매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주식의 매수 없이 10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허문도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새 경영진이 현재 통도사 지분 20%와 종단 소유의 지분 20%를 합친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대주주로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유스님은 "허문도씨의 실질적 재정 후원자인 정계식씨가 불교TV 국민은행 부실 채권을 상입공사로 이관된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을 했다"면서 "경매 절차를 통해 불교TV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사유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유화 의혹 제기에도 불교TV측의 한 간부는 "상입공사 이전 후에는 부채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씨가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사장 선임때반응
허씨의 불교TV 사장 선임에 대해 언론 개혁시민연대는 4월26일 강한 어조의 반

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5공시절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허씨는 언론사 사장 자격이 없다"며 "불교인들은 명예를 걸고 허씨의 사장 선임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사장은 "이번에 사장을 맡은 것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며 부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이사가 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계식씨 자금 능력
4월 29일자 '미디어오늘'은 정씨의 사업체 부도 소식을 전하고 '5공 비자금' 언론계 유입의혹'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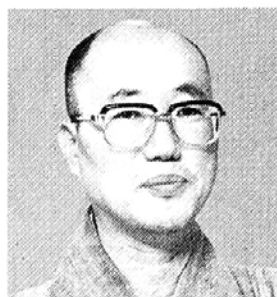
제3금융권인 한국엔젤파이낸스 주식회사 대표로 있는 정계식씨(49)는 부산·양산·울산에서 LG정유 주유소를 세 개 운영해 왔으나, 97년 12월 모두 부도 처리된 상태다. LG정유판매 부산 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도 처리로 발생한 채무 27억원을 갚지 못해 주유소가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현재 은행 담보거래가 정지돼 세 개 주유소의 어음도 부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산 은 천동 50평 빌라 자택도 동남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설정돼 있다.

70여원이 넘는 불교TV의 부채와 20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정씨는 30일 "10억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자금은 부산지사 설립자들이 함께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인터뷰 봉축위 집행위원장 원택스님 "국민에 희망주는 축제로"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한 참회와 빠르게 진행되는 진솔한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봉축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각종 행사 진행의 지휘와 점검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원택스님(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은 "이번 봉축행사를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연등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 전통문화축제로 지정됐는데...

부처님오신날이 단지 불교인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등축제가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거리행사를 연등축제 날인 16일 오전부터 시작해 시민과 외국인의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특히 제등행진에 장엄물과 함께 등(燈)에 중점을 둔 이유는...

등은 지혜와 소원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눠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사찰이나 단체에서 함께 등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도반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부처님 오신 뜻은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산 총무원장께서도 '자비의 대중화'를 종단운동의 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나눔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고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처이며, 나를 부처로 만드는 도반이기 때문입니다.

원택스님은 "연꽃을 서울시장앞 광장 조형물로 정했다"며 "이는 진흙속에서도 찬란함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겠다는 불교의 다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불자장군 죽이기' 의혹의 눈길

군 검찰 김태복소장 징역 5년 구형

"구체적 증거없이 종교편향 판결"

군 검찰은 4월26일 대전 육군 보훈군사법원에서 열린 '101여단 군법당 건립 관련' 군사재판에서 김태복 장군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5년, 추징금 8천5백만원의 구형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 공소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반박이다. 변호인단은 "법당 신축을 위해 보시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기소한 것은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김장군이 강제전역을 거부하자 군 검찰이 전역을 강요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는 등 김장군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군 검찰과 재판부가 재판추진기 재판에 의해 김장군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 군법사들 사이에서 김태복 소장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수뇌부의 강제 전역지시 의혹은 군개혁 차원의 부조리 및 개인비리 척결지시에 따른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소장의 경우는 한 장성의 개인비리가 아닌 육사 후배의 하극상에 의해 제기된 모함성 재보에 의한 수사로서 군개혁 의지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느끼게 할 정도다. 4월26일 재판말미에 이상도 변호사가 "군 출신으로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피할 노릇이다"고 변론한 사실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두 가지 배경은 결론적으로 한 불자 장성의 개인비리 문제가 아닌 현 정권의 종교편향적 정책과 불교계 전체의 대립구도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도 연관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 선출식 모습

돈의 위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능가하는 작다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서러울마져 금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적 책임이며, 대한민국 남자로써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자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의 어느집 자식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며, 고생 또한 좋아하는 사람 어느 누가 있겠는가? 돈으로 말쑥한 자식을 병신으로 만드는 사람은 과연 올바른 대장부로 키우고 자 하는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최고의 무너진 가진 의과대학 출신 군의관이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 판정으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존경 받는 의사의 존엄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

병무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인한 군인 정신을 돈에 팔아먹는 군인도 문제지만, 사회지도층 인사인 사업가, 고위공직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돈으로 자신의 병

역을 면제받다니 사회지도층의 도덕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적발된 207명 중 구속된 100명 뿐만 아니라, 비록 꼬리를 잡지 않았지만 가슴조이며 시치미 떼고 있는 뻔뻔스런 자, 어리석은 자들이 허다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선악업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善惡)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과거·현재·미래의 인과가 휘둘러 있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현생을 헛되이 잘못 보낸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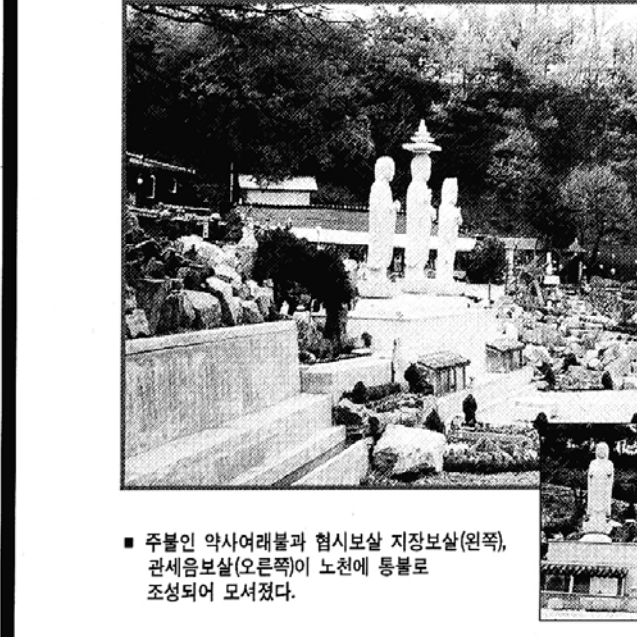
뇌물을 주고 받는 것도 악업일 것인데, 내 자식 귀하다고 대신 남의 자식에게 부당한 고통을 준다면 언젠가 그만큼에 해당하는 인과응보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당사자들은 사천왕의 협력을 기다리지 말고 지심 참회해야 한다.

법산(본지는설위원·동국대 정각원장)

목어

잘못된 자식사랑

천연동굴 기도도량 아미산 황룡사 노천 삼존불 점안대법회



주불인 약사여래불과 협시보살 지장보살(왼쪽), 관세음보살(오른쪽)이 노천에 통불로 조성되어 모셔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산하대지는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고 삼라만상은 새로움으로 춤을 추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따라 나뉘어 한반도 중심인 이곳 중원평 아미산 자락에 적멸상으로 나뉘신 약사여래불(15m) 관세음보살(12m) 지장보살(12m) 점안대법회를 고계 원로 대덕 큰스님과 인연있는 신도님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가 청정하다고 하였듯이 산승이 아미산 자락 황룡사에 거주한 한지 3년 황룡사에서 솟아나는 감로수로 부처님께 공양하여 그 기력으로 새로운 천년을 여는 오늘 미래 고종반은 중생들에게 감로법으로 해탈의 문을 열어 삼업의 때를 씻는 귀의처가 되게 하고자 발원하였습니다. 인연있고 인연없는 신도님들께서는 이 거룩한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삼세의 모든 죄업 참회하시고 성불인연 맺으시어 모든 소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나루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여래불
나루 대자대비구구대관 관세음보살
나루 유명교주대원본존 지장보살

불기 2543년 5월

주지 벽송 상묵(碧松 常默) 합장
천연동굴기도도량 아미산 황룡사

모시는 말씀

- ◆ 증명대법주 경각 대중사 석일화 대중사 석금암 대중사
- ◆ 증 명 효성 예우 혜정 무주 혜안
- ◆ 봉행위원장 석혜봉
- ◆ 후원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한국불교 법문종,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불교TV, 불자가수협회

① 일시 : 불기 2543년 5월 12일(음. 3월 27일) 오전 10시
① 식순 : 제1부 : 점안법회 10:00~12:00
제2부 : 축하공연 13:00~15:00
① 장소 : 아미산 황룡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 70)
전화 : (0443)647-7728, 647-5591 / FAX : 647-8761

의도

오티리노인회관
점안법회
대리
방범포소
수산
황룡사(아미산오티리 약수터)

★ 1부 점안법회식에 이어 2부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 법회날 동참대중 모두에게 주지 벽송 상묵 스님의 저서 <하늘을 거울삼아>를 1권씩 법공양합니다.